

# 강진 마랑놀토수산물시장 매출 '쑥쑥'

## 지난해 27만명 방문·23억원 판매...할인·경매 등 '호평'

강진 지역경제 활성화의 알짜 선두주자로 평가받는 마랑 놀토수산물시장이 '2017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방문객과 매출 기록을 또 다시 갱신했다.

총 매출액은 23억원, 총 방문객은 27만명으로 전년 대비 매출, 방문객이 각각 8%, 10% 이상 증가한 수치다.

타지 자체의 물모델이 되는 강진군의 관광사업의 효과 수입원, 마랑 놀토수산물시장의 성공 비법을 집중분석해 본다.

### ◇ 성공 포인트 '3색 재미'

마랑놀토수산물시장은 지난해 4월 1일 개장, 11월 25일까지 지난 토요일과 청자축제 기간을 포함해 모두 44회 운영됐다.

그 결과 총 매출액 23억원, 총 방문객은 27만명을 기록했으며 하루 평균 매출액은 5천200만원, 방문객은 6천명 가량이었다. 매출 20억원 방문객 24만명을 기록한 전년 대비 올해는 매출, 방문객이 각각 8%, 10% 이상 증가했다.

매년 큰 폭의 성장 수치를 보여주는 마랑놀토수산물시장의 결정적 성공요인은 3초 3부를 기반으로 한 3색 재미의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 있다.

3초 3부란 '감성', '추어', '실속'이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최고 품질, 최고 저리의 '3초'와 수입산과 비브리요, 바가지요금이 없는 '3부'를 실현하는 운영 전략이다.

더불어 마랑 놀토수산물시장은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3색재미가 관광객들의 단한 지갑을 열게 하고 있다.

3색 재미 그 첫 번째는 먹거리이다. 마랑 놀토수산물시장은 방문한 관광객 600여명을 대상으로 불회, 농어, 갯장어 데침 요리 등 놀토 여름철 대표음식 시식회를 통해 남도 해



강진 마랑 놀토수산물시장이 지난해 매출액 23억원, 총 방문객은 27만명으로 전년 대비 매출, 방문객이 각각 8%, 10%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산물 요리의 참맛을 알렸다.

또 전국 해산물 요리 경연대회를 추진해 특색 있는 음식을 발굴하고 불거리를 제공하는 등 신선한 수산물을 활용한 이벤트도 다양하게 추진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보자는 여부에 따라 된장물회 재료로 광어와 전복, 해삼 등을 추가했다. 구수한 된장에 신선한 회의 짙은 맛이 살아있는 된장 물회는 강진 여름을 대표하는 신메뉴로 큰 인기를 끌었다.

3색 재미 두 번째는 구매욕을 자극하는 다양한 살거리이다.

마랑놀토수산물시장은 최고 자랑거리인 신선한 제철 수산물을 활용하여 연중 20~30%에 이르는 특별한 인판매를 추진했다.

봄에는 갑오징어, 주꾸미, 여름에는 농어와 전복, 갯장어, 된장물회, 가을에는 전어와 꽃게, 낙지, 대하 등을 할인판매하고 냉장고, LED TV, 제습기, 온수매트 등 다양한 경품행

사를 가졌다.

청정 바다의 신선한 제철수산물을 활용한 각종 이벤트는 관광객에게 마랑면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각인케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강진착한한우 10% 특별할인, 특정 시간에 김, 미역 등 수산물을 할인 판매하는 '깜짝 할인판매' 청자 민·관오 작품 10여점을 받값부터 경매를 하는 '찾아가는 강진청자 경매' 등 다양한 부대 판촉행사를 통한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 ◇ '놀토수산대학' 경쟁력 강화

마랑놀토수산물시장은 놀토수산대학 운영을 통해 자체 역량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11월 까지 총 15회에 걸쳐 운영된 놀토수산대학은 놀토시장 운영자와 어업인들이 참여해 시장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고객 서비스 교육을 받았다.

더불어 놀토수산물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추진, 10회에 걸쳐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친절 서비스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자체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놀토수산물시장 평가단을 운영, 월 2회 평가를 통해 방문객 대상 설문조사와 함께 지속적인 개선사항 발굴 하고 접수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피드백하는 시스템으로 관광객들의 고객만족도를 높였다.

### ◇ 관광객 편의 시설 확충

놀토수산물시장은 판매부스에 간판을 개선하고 각종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마랑이라는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에도 힘썼다.

풍향에 따라 불췌처럼 움직이는 바람블로거를 시장 들레에 추가로 설치, 멀리서 봐도 수산물시장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했다. 농어 등 어류 모양을 관문 후면을 보완해 새로운 포토존으로 조성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 장흥군, AI 확산방지 '총력'

## 20개 가금류 농장 인근 차량·인력 통제

장흥군은 지난 10일 지역 오리 사육농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환원이 검출된 데 따라 오리 5만2천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것으로 환원 검출 농가에서 반경 3km 이내 2개 농가에서 진행됐으며 11일 오전 마무리됐다.

11일 오전에는 장흥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이승우 행정안전부 특수재난협력관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전남도, 장흥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AI 확산방지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이번 상황을 국가재난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부서별 임부부여, 오리 및 양계농가 20개 통제소 설치운영, 예방 분제점, 타지 자체 사례 관리 등 차단방역 대책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AI 바이러스 소멸기간인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를 AI 비상 근무기간으로 운영한다.

11일 오후에는 군청회의실에서

실과소, 읍면 담당 52명을 소집해

이동통제소 근무요령 교육과 근무조를 편성했다.

지역 20개 오리·양계농가 입구에는 진흙입 차량 및 인력통제, 소독방제를 위해 매일 150명(공무원 75명, 민간인 75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입시초소에는 추위를 대비한 컨테이너를 긴급 구입해 비상근무에 나서고 있다.

바이오산단 입구에는 거점초소, AI 발생지와 각 농장 입구에는 통제소소를 14일까지 설치해 운영에 돌입했다.

비상근무 상황과 현지점검, 방역 지도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전남도 관계자 등이 AI 상황해제 시까지 상주하면서 매일 재난상황실에서 일일 현지점검 및 보완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군 관계자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AI 확산방지 및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기적인 대책으로 축사원대화, 밀집사육방지, 계열사 및 농가 방역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부정책 반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신안군 초·중학생들이 2차례 어학연수 설명회를 갖고 1개월 일정으로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 신안군, 초·중학생 미국 어학연수

### 애리조나주서 홈스테이 등 문화체험

신안군 초등학교 10명과 중학교 10명은 신안군과 군장학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2차례 설명회를 갖고 1개월 일정으로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시(베일) 오코티오 리지 중학교와 베일아카데미 중학교로 12일 출국했다.

이번 어학연수는 프로그램 참여의 폭이 넓어져 다양한 문화체험과 어학연수 등 값지고 소중한 체험을 하고, 오는 2월 11일 귀국한다.

신안군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및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응시 원서를 접수 받아 영어지필, 구술시험을 치러 초등학교 10명, 중학교 10명 총 2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미국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로 생활하면서 미국의 오코티오 리지 초등학교와 베일아카데미 중학교에서 4주간 정규 수업에 참여해 현지 학생들과 공부를 하면서 어학실력을 쌓게 된다. /신안=김희 기자

## 해남군 "새해 도움되는 정책 알고가세요"

###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자녀 학자금 지원 등

해남군이 새해들어 농가에게 도움을 주는 시책을 신속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농가도우미는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경우 농작업을 대신해 주게 된다.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후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까지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해 신청할 수 있다.

농가도우미의 1일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1만원 오른 6만원으로, 80%는 군에서 지원해주고, 20%는 자부담하게 된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을 받는다.

또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이나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등을 둔 농어촌 거주 전업 농업인들에게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조건은 농업인인 경우 1명

이 전업 농어업인이거나 하며, 신청 농어업인의 연간 소득액이 농어업의 소득 및 영농규모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청한 농어업인은 분기별로 추가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학교의 재학 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 계좌로 당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입금한다.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지난해에는 355명, 3억 3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강진=한홍수 기자

## 쾌적한 입원실 완비

# 새운암병원

## 꼭 수술이 필요하십니까?

여기 수술없이 통증을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 비수술적 치료의 메카

# 새운암병원

이 있습니다

### 재생 주사를 이용한 비수술적 치료

- 만성 허리 통증
- 어깨 회전근개 파열
- 무릎퇴행성 관절염
- 인대 연골판 손상
- 팔꿈치 테니스 엘보 골프엘보
- 근육 파열 손목 인대손상 관절염
- 족저근막 치료
- 손발 저림
- 두통
- 수술 후 재활
- 턱관절
- 만성피로

## 062)527-0134, 524-8788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35(운암동)